불교계 “신불산 케이블카 ‘재검토’ 환영”

조계종 환경위 1월 6일 논평 발표
“국민생명 · 공원 보전 우선 가치”
통도사 “세계유산 보호 연대”
불교환경연대 “미련 없이 폐기”

임은호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신불산 케이블카 예정지에서 현장점검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케이블카 반대 의지를 밝혔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당국이 부동의 결정을 낸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온 불교계에서 환영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신불산의 재검토 결정은 환경당국이 그동안 흔들렸던 환경 보전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 폐기와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모든 개발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는 1월 6일 ‘37년 논란의 종지부,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 책무를 무시한 신불산 케이블카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위는 이번 결정에서 환경당국이 명확히 제시한 ‘안전’, ‘경관’, ‘생태계 훼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불가 사유에 주목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자연공원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불산은 급경사 암반 지형과 고산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케이블카 시설과 상·하부 정류장, 각종 부대시설 설치 시 낙석·붕괴 등 심각한 안전 위험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위는 “이번 결정은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환경당국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대한 판단 사유로 명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관 조망을 명분으로 케이블카와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할 자연공원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재검토 결정은 ‘경관을 본다는 명목으로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환경위는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및 각종 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자연공원 정책에서 국민안전과 생태 보전이 흔들릴 수 없는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영축환경위원회도 1월 7일 입장문을 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주군이 추진해 온 신불산 군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통보한 것은, 1989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37여 년간 이어져 온 논란에 중요한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단순한 개발 반대를 넘어 통도사의 수행환경과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하나의 문화유산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신불산이 영축산과 함께 통도사 산지승원의 핵심 축을 이루는 공간이며, 이 일대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음을 강조했다.

통도사는 또한 “세계유산 통도사가 지닌 1400년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향후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통도사 산군과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연대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해 왔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도 논평을 내고 ‘재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불교환경연대는 1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울주군과 울산시는 뭇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프라미스·스리랑카 SLCDF 협약…지역 역량 강화

12월 24일, 지속가능 발전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공동 추진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스리랑카 현지 NGO ‘스리랑카 개발촉진센터(SLCDF·Sri Lanka Centre for Development Facilitation)’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리랑카 사회 취약 지역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더프라미스와 SLCDF는 12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경험과 국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 재난 대응과 공동체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적 구호를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DRRM)와 기후 적응 전략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지역 조직 역량 강화·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중심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DRR(disaster risk reduction·재난 위험 경감)·지속 가능한 농업·기후 회복력 등에 대한 지식 교류 및 학습 촉진 △정부 및 지방 당국 정책 협력 △커뮤니티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

양 기관은 특히 재난 대응 훈련과 위험지도 작성,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속가능한 생계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재난 이후 복구를 넘어 사전 예방과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모든 협력 분야에서 성평등과 장애포용, 사회통합을 반영키로 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LCDF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이들이 보유한 광범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맞춤형 구호물자와 초기 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키로 했다. 더프라미스는 국제 인도적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물적 지원과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또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지역 주민과 지역기반조직의 자립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더프라미스는 최근 스리랑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사이클론 ‘디트와’가 스라랑카를 덮쳐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 침수피해로 고립됐던 모투나 지역 등의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 구축, 위생 교육, 기초 생계 회복을 위한 현금·현물 지원 사업 등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난 연말에는 2004년 지진해일 피해 후 조계종의 지원으로 세워진 조계종복지타운 보육원을 찾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프라미스는 SLCDF와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금 및 재원 조달에도 적극 나선다. 사업 제안서 작성과 성과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형 모금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100-036-088002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2-735-3119

임은호 기자

대원아카데미,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역행지도사’ 과정 신규 개설
향후 ‘불교전법사’ 자격 연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부설 평생교육시설인 ‘대원아카데미’와 온라인 교육 과정인 ‘디지털대원아카데미’의 2026학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법 역량 강화’를 올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원아카데미를 이를 위해 ‘역행지도사(불교 전법) 과정’을 신설했으며 향후 개설되는 불교전법사 자격증과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행의 대중화를 위한 명상지도사 과정과 불교 전문 상담사 양성을 위한 심리상담사 과정도 운영된다. 3개 과정 모두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출석 기반의 대원아카데미와 시·공간 제약 없이 정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대원아카데미가 함께 운영된다.

또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 과목별 수강제도를 운영해 학습의 자율성을 극대화했다. 과정 등록자 1인당 동반자 1명에 한해 1과목을 청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수강생에게는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이 부여된다.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업 의욕을 독려하기 위한 풍성한 장학금 제도와 불교계 종사자 수강료 할인 혜택 등도 마련돼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원서 접수와 등록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다. 02-707-1072

신중일 기자

홍대선원, ‘行턴 수행 인턴십’ 5기 모집

2월 1일~3월 31일 2개월
만 22세~39세 신청 가능

JustBe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수행과 삶, 일을 하나로 잇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 ‘行턴: 수행 인턴십’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JustBe 홍대선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턴 5기는 출가 체험과 실무 인턴 과정을 결합한 2개월간의 수행 프로그램이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즉, 사는 모든 순간이 수행임을 모토로 수행자로 살아 보고 인턴처럼 배우며 나를 그리고 도반을 만나는 ‘리얼 수행 인턴십’이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2주간의 출가체험에서는 예불과 참선, 불교공부, 운력, 대중생활을 통해 수행자의 기본 일과를 경험한다. 이어지는 6주간의 수행 및 실무 인턴 과정에서는 수행을 바탕으로 한 실무 경험이 진행된다. 기획과 운영, 행사, 홍보 업무에 참여하며 SNS와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실습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희망자에 한해 2주간의 ‘JustBe 히말라야 트립’도 마련됐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트레킹과 운력, 명상을 통해 자연 속 수행을 경험한다.

행턴 5기 모집 대상은 만 22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삶이 궁금한 이, 졸업이나 취업 이직을 앞두고 멈춤이 필요한 이, JsutBe와 커리어를 함께 그려 가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구글폼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비 50만원. 010-5906-2423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6년 4대 공모사업

원효학술상 등 공모 요강 발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6년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제16회 원효학술상 공모는 학자부문과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학자 부문 대상에는 2000만원, 특별상에는 1000만원, 학생 부문 선정 논저에는 200~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12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대학생·대학원생과 초·중·고교 불교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초등 불교동아리 50만원, 중고등 불교동아리와 대학·대학원 불교동아리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선정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제12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불교 관련 소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관·단체에게는 200~5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며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13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학술 부문과 불교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이뤄지며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kbpf2606@daum.net)로 가능하다. 불교 학술 부문 선정 저서에는 500~1000만원, 번역서에는 300~800만원이 지원되며 불교 콘텐츠 부문 선정 프로그램에는 500~8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중일 기자

서울 충정사 ‘남산-숨, 쉼’ 선명상 클래스

1월 10~25일, 주말 8차례 진행
몸-마음 돌보는 선명상 체험

서울 남산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선명상 클래스 ‘남산-숨, 쉼’을 개최한다.

‘남산-숨, 쉼’은 한 해의 시작점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선명상과 마음돌봄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주말 동안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싱잉볼 명상,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 명상, 감각 기반 명상, 마음챙김 소통 명상, 식사 명상, 그림책 명상의 8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진행은 동국대 선학과 명상수행 코칭 전공자들로 구성된 명상 안내자들이 맡는다.

참가자들은 호흡과 감각, 소리와 이야기, 먹는 행위와 관계 맺기 등 일상적인 경험을 명상의 소재로 삼아 자신을 돌보고 삶의 방향을 차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은 충정사 선명상실에서 진행되며, 회차별 참가비와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르다.

주지 덕운 스님은 “새해맞이 선명상 클래스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기 삶을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불교 명상이 수행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삶의 지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02-2279-5538

여수령 기자



동국대 WISE캠 대강당, ‘와이즈홀’로 재탄생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1월 6일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지하 1층 와이즈홀(구 대강당)에서 ‘와이즈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은 2009년 완공된 이래로 대학의 배움과 교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공간의 브랜드화와 정체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대강당 명칭을 공모했다. 동국대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와 연결성을 강조하고, 대학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64차 중앙회장에 선민지 씨

12월 27일, 정기총회서 결정
“말보다 행동, 권위보다 봉사”


임유정 선관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선민지 중앙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64차 중앙회장에 선민지 한국농수산대 지회장이 선출됐다.

대불련 64년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유정)는 12월 27일 서울 동국대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선민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유주연 전 회장이 다져 놓은 연대의 마음을 이어받아 ‘깊어지는 우리’에서 ‘평생 도반’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환하게 밝히겠다”면서 “따뜻하고 실천적인 대불련을 법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권위보다 봉사로 법우들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